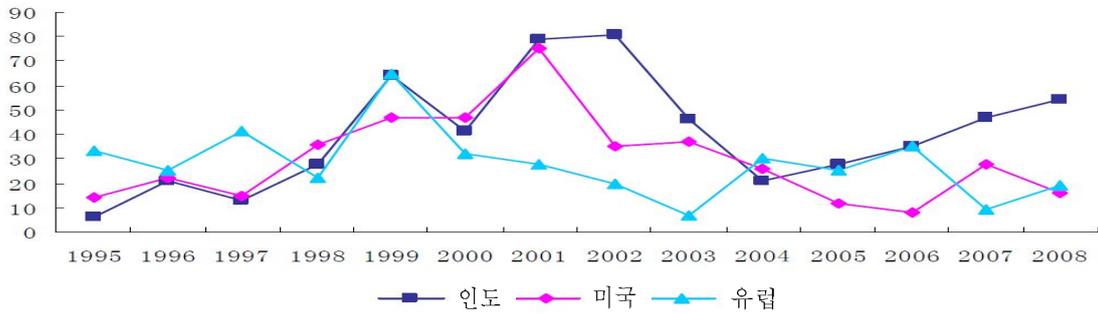


## 중·미 타이어 통상 분쟁과 중국 내 반응

### 1. 개요

- 세계 경제위기 후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화폐정책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수출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음.
  - 이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특별보호 조사 등의 무역구제 조치와 무관하지 않음.
  - 2009년 8월 초 WTO의 조사에 의하면 2009.4~2009.8까지 G20 국가들은 91개의 보호무역 색채를 띤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함.
- 미국은 1995-2008년 기간 중 반덤핑을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 중 하나(〈그림-1〉 참고)로 최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2009.9.12).
  - 과거 중국은 WTO 가입 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WTO가입 의정서” 〈中華人民共和國加入WTO議定書, 이하 ‘의정서’〉를 체결함.(2001.12.12~2013.12.11).
  - ‘의정서’ 는 중국산 제품이 WTO 회원국으로 수출될 경우 과도한 수출량 증가로 수입국의 관련 산업에 피해 또는 위협을 줄 시 WTO 회원국은 단독으로 중국제품에 대하여 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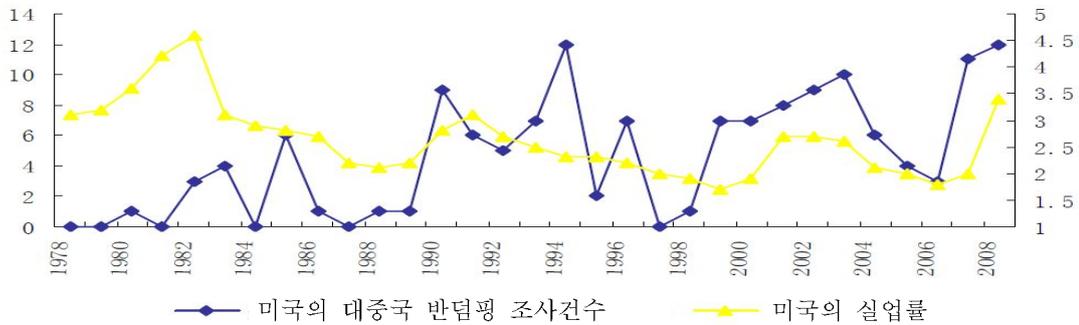
<그림-1> 1995-2008년 반덤핑 제소 상위 3개 국가 (단위: 건수)



자료출처: 上海申银万国证券研究所有限公司 "贸易摩擦不影响未来进出口整体走势" 2009.10.27

- 최종 반덤핑 안건 중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최종판결수가 전 세계 평균수준을 초과하여 가장 높음.
- 미국의 실업률 상승은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하여 무역마찰을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림-2> 미국의 대 중국 반덤핑 건수와 미국의 실업률 관계 (좌: 조사건수, 우: 실업률)



자료출처: 上海申银万国证券研究所有限公司 "贸易摩擦不影响未来进出口整体走势" 2009.10.27

## 2. 중미 타이어 분쟁의 전개과정과 주요내용

### 가. 미국의 징벌성 관세부과

- 미국 정부는 “중국의 대미 타이어 수출에 대한 특별보호조치(이하 ‘특별보호안’)”를 통과하여 중국산 타이어에 대하여 3년간, 즉 1차년도 35%, 2차년도 30%, 3차년도

25%에 해당하는 징벌성 관세를 부과하고자함.

- '특별보호안' 실시 전의 타이어 관련 관세는 약 3.4~4.0% 이었음.
- 2009년 4월 미국철강노동자 연합회의가 '특별보호안' 관련 요구 제출을 시작으로 5개월이 지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 타이어에 대해 3년간의 징벌성 관세 실시에 서명함(<표-1> 참고).
- 10월 15일 산둥 링롱 타이어유한회사 해외마케팅부 부경리(山东玲珑轮胎有限公司海外营销部副经理) 성리화(盛丽华)에 따르면 미국 특별보호안 후 기업의 총 수출액 중 미국의 비중이 20%에서 15%로 하락했다고 함.
- 이에,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미국산 자동차와 닭고기(이하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함(2009.9.13).
- 상무부연구원 연구위원 매이신위(梅新育)는 많은 이들이 무역보복조치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WTO의 규정에 맞춘 조치이므로 무역보복이라 할 수 없다고 언급함.

<표-1> 타이어 통상 분쟁의 과정

시기	주요 내용
09.4월	미국철강노동자연합회가 미국무역위원회에 '특별보호안' 관련 요구 제출
09.6.2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타이어 '특별보호안'에 대하여 구제조치
09.8.7	미국 무역대표부 타이어 '특별보호안'에 대하여 청문회를 개최
09.9.2	미국 무역대표처 오바마 대통령에게 체결의견을 제출
09.9.11	오바마 대통령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3년간의 징벌성관세의 실시를 서명
09.9.13	중국 미국산 자동차와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착수 선언

자료출처: 聚集中美轮胎特保案 <http://money.163.com/special/00253JQE/zmlt.html>

- 상무부는 미국의 타이어 '특별 보호안' 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힘 (2009.9.14).

- 중국 정법대학의 법·경제학연구센터(政法大学法与经济学研究中心) 우창하이(武长海) 교수는 이론상 중국정부가 미국 연방 국가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로 WTO에 제소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함.
- 또한 우창하이씨는 WTO 분쟁해결은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중 충분히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기업이 파산 하는 등 중국 타이어 기업에게는 어떠한 의의도 없지만, 현재의 제소는 정의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30일 내에 합리적 보상에 동의한다면 2개월 내에 미국에 대한 닭고기, 자동차의 관련조사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힘.
-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가 북경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상무부 대변인 야오젠(姚坚)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工业与信息化部), 관련 산업협회 등과 함께 타이어 관련 산업을 위한 지원조치를 연구하여 제정할 것이라고 밝힘(2009.9.15).
- 회의에서 중국고무산업협회(中国橡胶行业协会)는 △ 완성차의 타이어에 대하여 중국제품을 주로 이용, △ 수출환급세율 현재의 9%에서 이전의 13~15%로 회복, △ 주요 원자재 수입 관세를 현재의 20%에서 5% 혹은 전액면제 등을 건의

#### 나. 미국산 닭고기 및 자동차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 최신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닭고기 수입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8년 상반기 약 73%에 달하며, 2009년 상반기에는 89%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이미 30만 톤에 달한다고 함.
- 이러한 수입증가의 원인은 저렴한 가격경쟁력<sup>1)</sup>.
- 산둥(山东)은 중국의 주요 닭고기 생산지로서 금융위기 이후 국외로부터 가격이 비교적

1) 중국 목축업 협회(中国畜牧业协会) 부비서장 마추양(马驹)에 의하면 매 톤당 미국산 닭고기의 가격은 자국 내보다 300-500 위안이 저렴하다고 함.

저렴한 닭고기를 대량 수입하면서 닭고기 가공기업이 경영 어려움에 직면

- 현재 대부분 지역의 조류관련 육류생산<sup>2)</sup> 기업의 가동률은 50-60% 수준이며, 60-70만 톤의 재고량이 방치되고 있다고 함.
- 올해 산둥 양회 개최기간 중 산둥성 중화전국상공업자연합회(工商联) 위원장 루안원통(栾文通)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수입한 냉동 닭다리의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는 매 톤당 5,000 위안, 시장가격이 매 톤당 7,000 위안이지만 국내 가공기업의 평균비용은 매 톤당 9,000 위안이라고 함.

□ 상무부는 미국산 닭고기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를 미국정부의 보조에 있다고 판단

- 마추앙은 닭고기제품에 대한 보조방식이 △양식사료 (예: 대두, 옥수수)에 대한 보조, △기업의 수출 장려 정책, △이 외에 생산기업에게 수출에 따라 신용대출의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언급함<sup>3)</sup>.

□ 중국 “전기 기계 제품 수출입 상인연합회 자동차분회(机电产品进出口商会汽车分会)” 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자동차 주요 수입국 대상국은 독일,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등임.

- 이 가운데 2008년 수입된 미국 자동차는 총수입량의 14%, 총금액의 11.1%를 차지함.
- 해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7월 기간 중 자동차 수입량은 18.1만 대로 그 중 미국에서 수입된 차는 모두 2.6만 대에 달하지만, 일본, 유럽과 비교 시 미국자동차의 수입 비중은 크지 않음.

□ 한 분석가는 현재 중국자동차 부품제품의 가격은 비교적 높은 상태이기에 이번 상무부의 조치는 아마도 완성차 부품에 대한 반보조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봄.

2) 닭고기의 공급과잉은 이미 시장의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생닭 1마리당 3.6-3.8 위안으로 실이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함.

3) 닭의 주요 사료인 대두·옥수수 소작인에 대한 미국정부의 직접적인 보조로 생산가격을 낮추었다고 함, 사료의 비용은 닭의 생산 비용 중 약 70%를 차지한다고 함.

### 3. 중국내 반응

#### 가. 중국 국민의 반응<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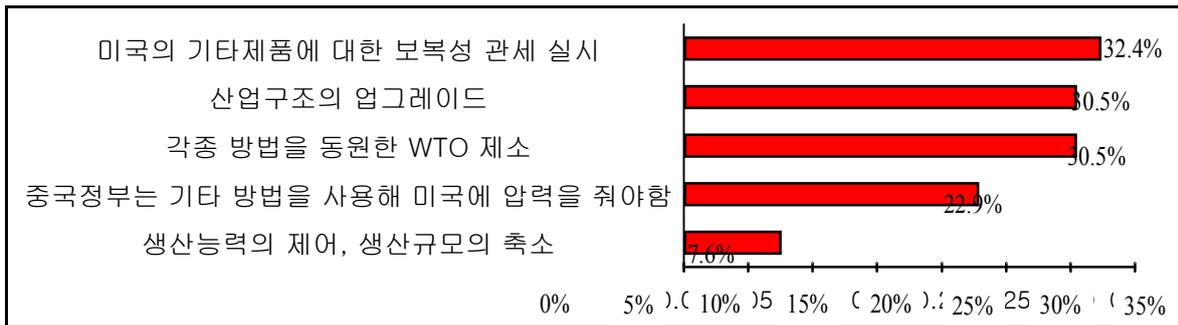
□ 미국의 ‘특별보호안’에 대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 대부분의 응답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그림-3> 참고).

- 응답자의 약 70%가 “미국이 중국의 승용차·경트리의 타이어에 특별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무역보호주의 정책이다”라고 생각, 45.7%는 “미국정부가 철강노동자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으로 세운 정책이다”라고 생각

-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미국의 특별관세로 “무역마찰의 증가, 무역보호주의 대두”로 중국타이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

· 그러나 미국 상무부 부장 게리록(Gary Locke)는 방중 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지 않으며 비록 중미간의 무역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양국의 관계가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언급함.(10.28).

<그림-3> 미국정부의 타이어 보호 법안에 대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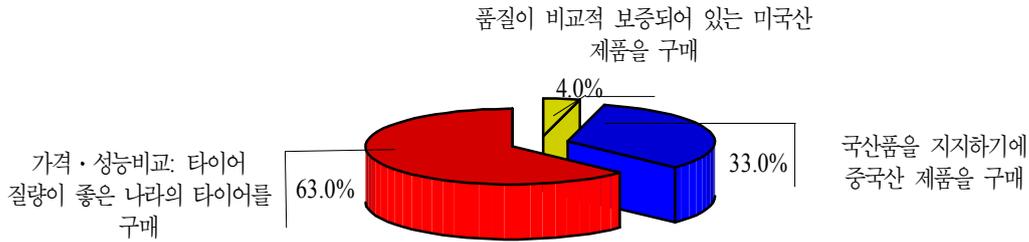


자료출처: 《中国经济时报》, “轮胎特保案—伤害了谁?—数字100市场研究公司”, 2009.9.24

□ 미국정부의 타이어 ‘특별보호안’을 직면함에도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소비행위상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보임(<그림-4> 참고).

4) ‘숫자100·시장연구회사(数字100市场研究公司)’는 중국 관영방송 CCTV 채널 ‘오늘의 관찰(今日观察)’과 함께 3,551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그림-4> 만약 중미 양국의 제품가격이 같다면 당신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자료출처: 《中国经济时报》, “轮胎特保案—伤害了谁?—数字100市场研究公司”, 2009.9.24

## 나. 기업의 반응

□ 중국 타이어 기업은 ‘특별보호안’에 대하여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함.

- 화난고무타이어회사(华南橡胶轮胎公司)는 미국의 35% 징벌성 관세에 대응하여 35%의 가격인상을 결정하였다고 함.
- 베이징 소우추앙 타이어 외무부(北京首创轮胎外贸部)의 왕경리(王经理)에 의하면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타이어 가격이 이미 15-20%의 상승하였다고 함.
  - 현재 미국 자동차타이어 판매상은 ‘특별보호안’의 기세를 빌어 국내 타이어 판매가격을 최소한 15% 올렸음.
  - 이로 인하여 미국 국내 소비자는 타이어 구매 시 15% 이상의 가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미국의 ‘특별보호안’ 이후 대다수 타이어 기업들 신흥시장의 진출을 고려

- 왕경리는 자신의 회사의 경우 선적가격(FB)만을 계약하였으나 현재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의 계약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왕경리는 현재 많은 타이어 기업들이 모두 신흥시장을 개척하고자 하여 가격경쟁 발생과 더불어 ‘특별보호안’의 인용(引用)이 이루어져 신흥시장에서도 반덤핑이

형성될 수 있음을 우려함.

□ 타이어 ‘특별보호안’ 후 포페이팅(forfeiting)<sup>5)</sup>이 점차 대두되고 있음.

- 상무부 외사발전국양성중심(外事发展局培训中心)의 주임 진홍(金红)은 최근 몇몇 민간투자기구가 포페이팅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이며, 특히 미국의 타이어 ‘특별보호안’ 이 후 포페이팅 업무가 신흥시장 개척에 있어 필수 시스템이 되고 있다고 함.

· 상하이(上海)의 투자관리유한회사의 프로젝트 담당자 쟡칭(张清)은 상무부의 연수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에게 포페이팅을 더욱 많이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다. 전문가의 반응

□ 한 전문가는 보호무역주의는 단기적으로 국내의 특정산업을 보호할 수는 있으나 글로벌 경제의 전면적인 회복에는 불리하며 단일적인 경제정책은 특정산업의 이익을 만회할 수 없고 또 국가경제는 단일산업에 의존하여 발전할 수 없다고 언급함.

- 또한 세계경제회복에 필요한 것은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참여이기에 미국정부의 타이어 보호 법안은 중미 양국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함.

□ 미국의 타이어 ‘특별보호안’ 으로 중국 타이어 수출이 약 50% 감소될 것으로 예측

- 또한, 미국의 판매상원자재생산업자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국의 취업방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약 2.5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한 전문가는 이번 미국의 징벌성 관세가 표면적으로는 WTO의 관련 절차와 부합되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법률적 부족에 의거하여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비판

□ 보호무역조치 도미노 현상이 우려

5) 재화와 용역인도(대부분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원래 채권자에 대한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문제발생시 수출업자에게 채무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의 형태임.

- 장이(張毅)변호사는 한 나라의 보호무역조치는 상대국가의 소비지역 전환을 유도하기 때문에 결국 많은 나라가 서로 비슷한 무역 제재를 신청할 것이며 이로 인해 보호무역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이는 세계시장에 대한 중국 수출기업의 전 방위를 가로막는 장벽이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함.
- 이미 중국의 무계목강관(seamless steel tube)에 대하여 △ 유럽은 반덤핑 최종판정 후 17.7%에서 29.2%의 징벌성 과세를 결정(10.6), △ 미국 상무부 역시 부분적 무계목강관에 대하여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밝힘(10.7).
- 미국의 3개 제지회사와 철강연합노동회(美国联合钢铁工人工会)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 중국인도네시아산 '아트 인쇄지', △ 중국대만산의 '표준 철근재'에 대하여 반독점·반보조금 조사를 신청하였음(9.23).
- 9월25일 중국산 구리·칼륨·인·소금 역시 조사 등록됨.
- 인도 재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소다에 20%의 특별보장조치세를 추과과세하기로 함(10.6).

〈참고자료〉

- 《21世纪经济报道》, “轮胎内鸡对决:中美贸易交锋‘低热度’”, 2009.9.15  
《中国金融在线》, “美国对华“轮胎特保案”背景介绍”, 2009.9.18  
《中国经营报》, “代号—中国特堡行动”, 2009.9.19  
《中国经营报》, “中国轮胎企业欲提价应对特保”, 2009.9.21  
《中国经济时报》, “轮胎特保案—伤害了谁?”, 2009.9.24  
《财经网》, “骆家辉:美国企业应充分参与中国清洁能源市场”, 2009-10-28  
《第一财经日报》, “轮胎受贸易壁垒重创出口订单惨淡”, 2009.10.16  
《经济观察报》, “轮胎特保恶果初现 中美双输便宜了第三者”, 2009.10.19  
《中国经营报》, “贸易保护:超强传染度, 升级在持续”, 2009.10.19  
《上海申银万国研究所有限公司》, “贸易摩擦不影响未来出口整体走势”, 2009.10.27  
<http://money.163.com/special/00253JQE/zmlt.html>

(자료 정리: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이일남)